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고양시 선별진료소 방문 관계자 격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11일 덕양구보건소 등 관내 3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 공동체 및 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자 이동 경로와 자가격리자 상태 및 각 선별진료소 운영체계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난에 헌혈활동 참여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7일 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말, 추석 연휴 혈액 보유량 감소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에 단체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헌혈에 동참한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헌혈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중앙혈액원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헌혈행사 등 헌혈권장 활동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상식



가을철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감염병

출처 질병관리본부

1. 수인성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명절 기간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할 수 있는 음식 등을 함께 먹을 경우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고 생선·고기·채소 등은 도마 분리 사용

2. 비브리오패혈증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급성 패혈증으로,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중독,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2.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3. 5°C 이하로 저온 보관, 85°C 이상 가열 처리하기
4.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해수 사용 금지)
5.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 착용, 요리한 도마·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

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를 통해 옮기는 감염병으로, 성묘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풀숲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성묘나 농작업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옷 입기
2. 성묘를 드릴 때는 돗자리 등 이용
3. 벌초할 때는 풀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4.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5. 야외활동 후 귀하는 즉시 목욕하기